유혹을 기회로 느끼는 마음상태

(잠언 5:1~23)

1.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2.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3.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4. 나중은 쑥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로우며
5.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6.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유혹을 기회로 느끼는 마음상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유혹을 기회로 느끼는 마음상태'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끌어 당겨야 할 기회로 느끼는 마음상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상태가 어떤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사탄은 왜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접근하여 유혹했는지 생각해보셨는지요?
세간에서 말하는 대로 여자의 마음이 갈대 같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교활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활함이나 간교함'이란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뱀으로 비유된 사탄의 지혜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나쁜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간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둘 때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탄은 대적이기에 인류의 조상인 하와가 유혹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하와를 설득한 것입니다. 유혹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잘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완고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지독하게도 설득이 안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자녀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부

하게끔 설득할 때에 공부를 잘하면 얻게 될 좋은 결과들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완고할 정도로 부모의 설득에 넘어오질 않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굳세게 마음을 지키는 셈입니다.
이런 예를 통해 볼 때에 마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유혹을 당한다는 것에는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말려도 게임에 빠져듭니다. 마음이 게임의 어떠한 조건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은 게임 유혹에 친화적인 조건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는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마치 단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공부방에 몰아넣고 책상 앞에 앉혀놔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게임은 부모의 눈을 피해서 기회만 있으면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공부나 게임 같은 대상들에 마음이 붙잡거나 거부하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한 것에서 뱀의 지혜를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뱀의 지혜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에 아담보다는 하와가 유혹하기 쉬운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 선악과 그림이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침투한 대상이 있을 때에 외부로부터 유혹이 주어지면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 지키기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곧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내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들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속에 이 세상 것을 담지 말라는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않으면 됩니다. 판단으로부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려는 행위가 부수적으로 마음을 지키게 해줍니다.
마음이 지켜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은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이 생깁니다. 이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

에 하나님의 뜻과 은총은 계속해서 샘솟게 됩니다. 어제 보았던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도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지혜와 연관된 마음지킴의 문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요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채워줍니다. 반면에 내가 판단하면 세상은 내 마음을 장악합니다. 스스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세상에 장악되어 생각하며 그로 인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나를 움직여가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 판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생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다만 유혹의 특징은 스스로 하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판단은 내 속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기에 100% 수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땅에 기름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고 적절한 판단은 내 속에서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판단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와 마찬가지로 유혹도 외부로부터 다가옵니다. 다만 지혜는 구해야만 내게로 다가오는데 유혹은 구하지 않더라도 내게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은 음녀의 유혹을 예로 들어 마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혹은 음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돈 권력 형통 등을 비롯한 사람들이 침 흘리는 세상가치들에서는 모두 유혹이 성립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음녀의 유혹을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유혹에 약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일까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앨범과 같습니다. 사람은 결코 재미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게임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게임과 달리 공부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는 공부로 유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공부를 잘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게임에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이미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의 결과를 아름답게 묘사할지라도 아이들은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유혹에 넘어가는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유혹거리를 좋아하여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음녀의 유혹을 대표로 삼아서 마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음녀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 안에 이미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음녀의 등장은 유혹이 아닌 기다리던 기회가 됩니다.
은퇴한 사람이 사기꾼에게 속아서 퇴직금 전부를 탕진했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갖겠다는 그림이 없었다면 애초에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랜드로버 검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랜드로버라는 외제차를 뇌물로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차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이 사람의 마음속에 외제차에 대한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뇌물로 주어지는 외제차를 뿌리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혹이 아닌 기회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새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미투 운동은 여성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권력으로 강압된 성적 이탈 행위를 고발하는 운동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제로 하여 생각해보면 여성의 존재 자체가 남성에게 유혹이 된 경우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음녀의 유혹과 같은 자발적인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성립된 이유는 남자의 마음속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아셨기에 마태복음 5장 27~28절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유혹을 마음의 차원으로 옮겨서 해석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으려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의사와는 관련 없이 그 존재 자체를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미투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 가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멋진 아파트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입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대출까지 받으면서도 집을 삽니다. TV에서는 대출 광고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마음에 집을 담고 있기에 이 광고가 유혹이 아닌 기회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러한 그림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출 광고도 쇠귀에 경 읽기일 뿐입니다.
마음에 대출을 받아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림이 있으면 유혹은 기회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자가 너무 비싸서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반복하여 유혹을 받는 중에 기회로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제2금융권의 광고에 “우리도 바쁠 때는 택시를 탑니다.”라고 합니다. 그 소리가 그럴싸하게 들리는 이유는 택시를 타고 가서 일이 잘 됐으면 택시비가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택시비에 투자하여 일을 성사시키듯이 일단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 사업을 확장하고 나면 차차 갚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유혹을 기회로 여기는 때가 오면 결국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집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대출 광고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사업을 확장해도 일이 뜻대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저기서

사고가 나서 결국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이자는 늘어갑니다. 결국 가졌던 집조차 팔고서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마음을 지키기 못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마음속에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의 그림이 상상입니다.
'상상'이라는 말은 형상 상(像)에 생각할 상(想)을 씁니다.
생각할 상(想)의 글자를 보면 서로 상(相) 아래에 마음 심(心)이 있습니다. 서로 상(相)은 나무 목(木)에 눈 목(目)자를 쓰고 밑에 마음 심(心)을 씁니다. 나무 위에 눈을 겁니다. 즉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봄을 뜻합니다. 기다리고 바라고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은 결국 구체적인 대상을 그림으로 삼아 좋아하고 바라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고위 공직자가 사과상자에 가득 찬 돈다발을 상상합니다. 그러던 중에 청탁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일이 일어났으니 이것은 유혹이 아닌 기회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은 진공상태와 같이 흡입력을 갖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음은 이 흡입력의 대상을 상상에서 찾아냅니다. 가질 때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들이 그림처럼 앨범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앨범에 담긴 내용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유혹이 생겨나면 그것을 기회로 붙잡는 것입니다. 흡입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유혹은 기회로 정당화됩니다. 법을 어기고 눈을 피해서라도 기어이 그것을 얻고야 말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음녀의 유혹을 든 것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유혹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유혹은 음녀가 아니라도 세상의 모든 가치에서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유혹들로부터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상상의 앨범을 없애야 합니다. 오늘 말하는 상상은 단순히 허튼 생각을 뜻하는 공상(空想)으로써의 의미가 아닙니다. 곧 내 마음의 눈을 높은 나무에 걸고 멀리까지 바라볼 정도로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상상입니다. 이러한 상상의 앨범을 마음에서 제거할 때에 마음은 지켜집니다.
상상의 앨범이 마음에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가질 때에 기쁘고 만족하리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치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마음에는 앨범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외제차를 타면 얼마나 좋을까, 명품백 들고 동창회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앨범이 형성되고 나면 유혹은 기회가 됩니다.
돈에 대한 마음의 그림에 없다면 재테크 사기에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이성을 탐닉하지 않는 자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던 다윗이 밧세바에게 넘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외면한 것입니다. 그러다 목욕하던 여인을 보게 되고 그것을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저 여인을 얻어야만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생기리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씻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앨범이 없다면 외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큰 하나의 그림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림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림을 붙잡을 때에 세상의 어떤 가치들도 기회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 되실 것입니다.
본문 16~17절의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어제 보았던 4장 13절의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마음에서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십자가는 지금의 나의 사건이 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십자가 그림 단 하나를 붙잡음으로써, 세상 가치들이 모인 앨범을 타파하여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총의 샘물을 받아 사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으로 십자가 그림 하나를 붙잡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서 형성되는 세상의 가치들로 인한 앨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지켜짐으로써 하늘의 샘과 우물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